

무배우자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

최은영¹ · 하주영²

부산대학교 대학원¹, 부산대학교 간호대학²

Perception of Sex Life and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the Spouseless Aged

Choi, Eun Young¹ · Ha Ju Young²

¹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Busan

²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Yongsan,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ex life and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among the spouseless elderl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49 elders who resided in six administrative regions of B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 2012 to March 3, 2013 using a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 a PASW 18.0 program. **Resul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ata indicated that the most likely predictor is gender. Gender, sexual rel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explained 34% of the variance of perception of sex life. Gender, dating status and age explained 44% of the variance of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Conclusion:** Based on the study findings, gender and current dating status should be considered to conduct comprehensive sex health care education for healthy sex life of the elderly with no spouse.

Key Words: Aged, Perception, Sex, Adaptation psychological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0만명을 돌파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혼자 사는

노인도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무배우자 노인의 비율이 32.6%였으며, 2013년 현재 106만명으로 2032년에는 30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노후생활의 삶의 질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노년기의 성(性)은 즐거움과 쾌락, 인간 간의 감정의 육체적 교류, 사회공동체의 원동력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긍심을 높여주기 때문에

주요어: 노인, 인식, 성, 정신적 적응

Corresponding author: Ha, Ju 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ongsan 626-870, Korea.
Tel: +82-10-3205-7364, Fax: +82-51-510-8308, E-mail: jyha1028@pusan.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최은영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한 것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Jul 22, 2013 / Revised: Oct 31, 2013 / Accepted: Feb 2, 2014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Rim & Park, 2011). 또한 성생활을 통해 신체적 기능과 자아정체감이 강화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불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Kalra, Subramanyam, & Pinto,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성생활은 부부의 애정의 결속도와 노후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Na, 2006),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하였다(Ra & Kim, 2011). 따라서 노년기에 배우자와 함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별, 이혼 등으로 노년기에 홀로 지내게 된 무배우자 노인의 경우 성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나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마땅히 해소할 방법을 찾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성 욕구 실태와 해소유형에 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Kang과 Kim(2002)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자 모두 성 욕구가 있다고 하였으며 성생활을 하기 원하고 이성교제를 통해 성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노년기 성생활에 대해 자녀와 사회의 이해와 수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년기 성생활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의 경향은 노인을 무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견들은 노인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한하게 만들었다(Jagus & Benbow, 2002). 따라서 노인의 성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노인의 성적 활동은 성 욕구, 성생활이 가능한 배우자 유무,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에 영향을 받는데(Kim, 2011), 성생활 인식은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욕구, 태도, 중요도를 인식하는 정도로 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Kim, Song, & Park, 2005),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진 노인일수록 성 대처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Kim, & Kim, 2010). 즉, 노인 자신들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성적 욕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방법은 노인에서 성적 활동을 활발하지 못하게 하므로(Kwon & Lee, 2006)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중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의 성생활 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건강상태, 성생활 유무, 이성교제 유무 등과 관련이 있으며(Kim, 2007; Kwon & Lee, 2006), 성 욕구 대처행동은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그런데 노인의 성생활 인식이나 성 욕구 대처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유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Kim, 2007; Kim, 2011; Kwon & Lee, 2006), 성태도와 성 욕구 대처행동의 관계연구(Rim & Park, 2011), 성태도와 성욕구가 성 욕구 대처에 미치는 영향(Choi et al., 2010) 등이 이루어졌으며,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며 더욱이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배우자 노인의 노년기 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 건강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자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을 파악하고,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무배우자 노인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 성 욕구 대처행동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 성 욕구 대처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배우자가 없는 자로 하였다. B시의 16개 구·군 중 협조가 가능한 5개 구와 1개 군을 선정하였으며, 노인복지관 3곳(45명), 노인대학 4곳(54명), 경로당 4곳(56명)에서 총 155명을 임의로 표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149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크기(f^2) .15일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수는 성생활 인식의 독립변수 8개 일 때 109명, 성 욕구 대처행동의 독립변수 10개 일 때 118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수 149명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학력, 동거형태, 자녀와의 관계, 무배우자 기간, 한 달 평균 생활비, 현재 이성교제, 현재 성 생활, 성 관계 대상자,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13 문항을 조사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Ware (1979)에 의해 개발된 건강 지각 측정도구(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를 Yoo, Kim과 Park (1985)이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번역한 32문항을 Lee와 Chung (1998)이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을 제외한 20문항 건강 지각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Ware (1979)의 연구에서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Lee와 Chung (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2) 성생활 인식

Kim과 Lee (2000)에 의해 개발된 성생활 인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성생활 욕구 4문항, 성생활 태도 3문항, 성생활 중요도 3문항 총 10문항으로, “아주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3) 성 욕구 대처행동

Park과 Jeon (2001)에 의해 개발된 성 욕구 대처행동 측정도구를 Na (2006)가 유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 욕구 대처행동 도구는 성적 표현성을 나타내는 8문항과 성적 통제성을 나타내는 8문항 총 16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점수 범위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성 욕구 대처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a (2006)의 연구에서 성 욕구 대처행동의 Cronbach's $\alpha = .7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3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우선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의 책임자에게 우선 연락 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자료수집 허락한 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설문지의 내용을 읽어준 후 대상자가 답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P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연구승인(05-2012-088)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설문지 배포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후 대상자들로부터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서에는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명기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생활 인식, 성 욕구 대처행동은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 성 욕구 대처행동의 차이는 t-test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여자가 53.7%로 많았고,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6세였으며, 65~74세가 59.1%였다. 결혼상태는 사별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불교가 45.0%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

이 32.2%로 가장 많았다. 동거형태는 혼자 사는 경우가 53.0%였고, 자녀와의 관계는 ‘좋다’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무배우자 기간은 평균 7년 7개월이었다. 한 달 평균 생활비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30.2%로 가장 많았고,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가 21.5%, 현재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23.5%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대상은 이성친구가 80.0%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80점 만점에 평균 52.59점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Variable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69 (46.3)	
	Female	80 (53.7)	
Age (year)	65~74	88 (59.1)	73.57±5.98
	≥75	61 (40.9)	
Marital status	Widowed	121 (81.2)	
	Separated	9 (6.0)	
	Divorced	19 (12.8)	
Religion	Protestant	28 (18.8)	
	Catholic	18 (12.1)	
	Buddhism	67 (45.0)	
	None	36 (24.2)	
Education	Uneducated	8 (5.4)	
	Elementary school	41 (27.5)	
	Middle school	45 (30.2)	
	High school	48 (32.2)	
	≥ University	7 (4.7)	
Living arrangement	Alone	79 (53.0)	
	With other family	70 (47.0)	
Parent-child relationship	Good	90 (59.6)	
	Moderate	41 (27.2)	
	Poor	18 (11.9)	
Duration of spouseless			92.78±84.70 (7 year 7 month)
Monthly living expenses (10,000 won)	< 50	33 (22.1)	
	50~99	45 (30.2)	
	100~149	26 (17.4)	
	150~199	26 (17.4)	
	≥ 200	19 (12.8)	
Dating status	No	117 (78.5)	
	Yes	32 (21.5)	
Sexual relation	No	114 (76.5)	
	Yes	35 (23.5)	
	Friend of the opposite sex	28 (80.0)	
	Acquaintance	6 (17.1)	
	Sex worker	1 (2.9)	
Subjective health status			52.59±5.70

2.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은 40점 만점에 평균 23.20 ± 4.28 점, 성 욕구 대처행동은 80점 만점에 평균 33.06 ± 9.53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t=6.08, p<.001$), 65~74세 연령대가 75세 이상보다($t=2.38, p=.019$), 중졸과 고졸 학력이 초졸보다($F=4.49, p=.002$),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혼자 사는 경우보다($t=-3.64, p<.001$),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F=4.45, p=.013$),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t=4.26, p<.001$), 현재 성 관계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t=5.65,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성생활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4, p<.001$)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욕구 대처행동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t=6.17, p<.001$), 65~74세 연령대가 75세 이상보다($t=4.45, p<.001$), 별거상태가 사별이나 이혼보다($F=6.72, p=.002$), 중졸과 고졸, 대학 이상의 학력이 초졸보다($F=6.60, p<.001$), 동거인이 있는 경우가 혼자 사는 경우보다($t=-2.84, p=.005$),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F=5.28, p=.006$),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t=6.77, p<.001$), 현재 성 관계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t=7.58,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성 욕구 대처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1, p<.001$)를 보였다. 한 달 생활비에 따른 성 욕구 대처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F=3.20, p=.015$) 사후 분석결과 항목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5~1.58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의 차이를 보인 변수를 회귀식에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불연속 변수들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

성생활 인식의 설명력은 34%(수정된 $R^2=.34$)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F=20.38, p<.001$).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은 남자($\beta=.34, p<.001$)였고, 그 다음은 현재 성관계를 하는 경우($\beta=.26, p=.001$),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beta=.21, p=.004$),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beta=.15, p=.0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욕구 대처행동의 설명력은 44%(수정된 $R^2=.44$)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F=39.35, p<.001$).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은 남자($\beta=.43, p<.001$)였고, 그 다음은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beta=.36, p<.001$), 연령이 낮을수록($\beta=-.24,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을 파악하고,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무배우자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실시되었으며, 이에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생활 인식은 40점 만점에 평균 23.20 ± 4.28 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유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2007)의 연구에서 평균 23.49 ± 4.64 점과 유사하여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경우 배우자 유무와 상관없이 성생활 인식 정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

Table 2. Perception of Sex Life and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Variables	M±SD	Possible score range	Real score range
Perception of sex life	23.20±4.28	10~40	11~34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33.06±9.53	16~80	16~60

Table 3.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ex Life and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9)

Variables	Categories	Perception of sex life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5.26±3.64	6.08	37.70±8.70	6.17
	Female	21.43±4.01	(<.001)	29.06±8.36	(<.001)
Age (year)	65~74	23.89±4.30	2.38	35.70±9.66	4.45
	≥75	22.21±4.11	(.019)	29.25±7.99	(<.001)
Marital status	Widowed ^a	22.86±4.00	2.45	31.74±8.61	6.72
	Separated ^b	25.67±7.00	(.090)	39.22±12.51	(.002)
	Divorced ^c	24.21±4.25		38.58±10.91	a < c
Religion	Protestant	22.96±3.30	0.28	32.50±7.91	0.20
	Catholic	22.94±4.32	(.842)	34.00±10.58	(.899)
	Buddhism	23.00±4.66		32.66±10.40	
	None	22.39±4.33		33.78±8.71	
Education	Uneducated ^a	21.63±4.93	4.49	27.75±10.22	6.60
	Elementary school ^b	21.20±3.74	(.002)	28.00±5.67	(<.001)
	Middle school ^c	24.07±4.38	b < c, d	35.38±9.99	b < c, d, e
	High school ^d	23.96±4.13		35.02±9.81	
	≥ University ^e	26.00±2.58		40.43±8.34	
Living arrangement	Alone	21.42±4.10	-3.64	30.15±7.95	-2.84
	With other family	24.05±4.12	(<.001)	34.45±9.92	(.005)
Parent-child relationship	Good ^a	22.51±3.99	4.45	31.64±8.00	5.28
	Moderate ^b	23.66±4.72	(.013)	33.39±11.10	(.006)
	Poor ^c	25.61±3.85	a < c	39.39±10.56	a < c
Monthly living expenses (10,000 won)	< 50	22.94±4.64	1.43	30.45±9.26	3.20
	50~99	23.71±3.42	(.229)	33.09±9.21	(.015)
	100~149	24.12±3.86		7.73±10.37	
	150~199	23.12±5.20		32.58±9.10	
	≥ 200	21.32±4.46		29.42±7.81	
Dating status	Yes	25.91±4.37	4.26	41.91±8.36	6.77
	No	22.45±4.00	(<.001)	30.64±8.34	(<.001)
Sexual relation	Yes	26.46±4.09	5.65	42.14±9.05	7.58
	No	22.20±3.84	(<.001)	30.27±7.80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r=.34	(<.001)	r=.31	(<.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Sex Life and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N=149)

Variables	B	SE	β	t	p
Perception of sex life					
Gender (ref=female)	2.89	0.59	.34	4.88	<.001
Sexual relation (ref=no)	2.56	0.74	.26	3.51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0.16	0.05	.21	0.29	.004
Parent-child relationship (ref=good/moderate)	1.89	0.91	.15	2.08	.039
R ² =.36, Adj. R ² =.34, F=20.38, p<.001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					
Gender (ref=female)	8.14	1.19	.43	6.86	<.001
Dating status (ref=no)	8.23	1.55	.36	5.32	<.001
Age	-3.76	0.11	-.24	-3.53	.001
R ² =.45, Adj. R ² =.44, F=39.35, p<.001					

나 과거 Kwon과 Lee (2006)의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성생활 인식의 하부항목인 성생활 욕구, 성생활 태도, 성생활 중요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생활 인식의 차이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더욱이 양로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Park과 Noh (2006)의 연구에서는 평균 17.58점으로 낮게 나타나 추후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 욕구 대처행동은 80점 만점에 평균 33.06 ± 9.53 점이며 평균평점으로 확인하면 5점 만점에 2.07 ± 0.50 점으로 중간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Rim과 Park (2011)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2.22 ± 0.66 점과 Kim (2012)의 연구에서 2.49 ± 0.67 점보다 낮았다. 본 연구와 달리 Rim과 Park (2011), Kim (2012)의 연구에서는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노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두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배우자 노인이 무배우자 노인보다 성 욕구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무배우자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선행연구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의 성 욕구 대처행동 정도는 중간 이하로 나타나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동거형태, 자녀와의 관계, 현재 이성교제, 현재 성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홀로 된 노인을 대상으로 한 Won (2003)의 연구에서도 성별, 학력,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국졸 이하 학력보다,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성생활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동거형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는데, 본 연구와 달리 혼자 사는 경우 성생활 인식이 높게 나타나 추후 세분화된 동거형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및 성생활 인식을 확인한 Ko (2008)의 연구에서 현재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 성생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남자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Kwon, Kim, Lee, Lee와 Chung (2002)의 연구에서는 현재 성생활을 하는 노인에서 성생활 인식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중재를 마련할 때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욕구 대처행동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동거형태, 자녀와의 관계, 한달 생활비, 현재 이성교제, 현재 성생활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용돈,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65~79세 연령이 80세 이상보다, 중졸 이상 학력이 초졸 이하 보다, 건강상태가 좋을 수록 성 욕구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 노인이 성 욕구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Kim (2012)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성 욕구 대처행동 점수가 자녀동거나 독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Bang과 Nam (2009)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성가치관에 맞게 자신의 성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성 욕구 대처행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 욕구 대처행동 점수가 높은 것은 외향적으로 성과 관련된 표현을 하든 내면적으로 성적 충동을 엄격히 억제하는 성 욕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동 형태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거가족이 있거나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좀 더 성 욕구를 억제하는 형태로,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성 관계를 하는 경우 혹은 선행연구에서처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성적 행동을 표현하는 형태로 대처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추후 관련 변수에 따른 성 욕구 대처행동의 차이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생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현재 성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와의 관계가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성별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성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태도와 성 욕구를 확인한 Delamater와 Sill (2005)의 연구에서 성별($\beta = -.44$)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노년기 유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Kim (2007)의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성생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Kim (2007)은 이러한 결과가 과거 여성은 무성적인 존재로 강요받으며 살아왔고 남성은 남성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년기 건강한 성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남자노인에게 있어 성이 갖는 의미와 역할 및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언론과 대중매체를 통해 노년기 성에 관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 욕구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현재 이성교제, 연령이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성별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성 욕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2012)의 연구에서도 성별($\beta = .26$)이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었으며,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Choi 등(2010)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대처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남성노인이 성 욕구 해소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을 실시한 Kang과 Kim (2002)의 연구에서 무배우자 노인 중 이성교제를 하는 남자노인은 교제중인 상대와 성생활을 통해 성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건이 허락되면 성욕구는 해소하고 사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 Bang과 Nam (2009)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게 있어 적극적인 성 욕구 대처행동은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노인이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 욕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Lee, Lee와 Kim (2013)은 노인의 성욕구 수준과 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74.9%가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 욕구에 관한 문항 중 배우자가 없더라도 성생활은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홀로된 노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Kim과 Kim (2013)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31.6%가 이성교제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성교제가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삶의 성공적인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년기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친밀한 대상이 필요하며 성에 대한 욕구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성은 성행위라는 좁은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다(Lee et al., 2013). 그러므로 노년기 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편견을 거두고 무배우자 노인들이 지역사회 건강교실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하고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현적이든 내향적이든 자신의 성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을 파악하고 각각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을 통해 임의표집 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제한적이었고, 성과 관련된 설문 내용에 대해 노출하기 꺼려하거나 성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의 경우 솔직한 응답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 욕구 대처행동 도구는 Na (2006)가 유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기에 추후 무배우자 노인의 성 욕구 대처행동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을 파악하고, 이들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무배우자 노인의 성생활 인식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성별과 현재 성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와의 관계로 나타났고, 성 욕구 대처행동의 유의한 영향요인은 성별, 현재 이성교제, 연령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 노인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의 가장 유의한 영향요인은 성별로 남자노인이 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태도도 긍정적이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배우자 노인의 건강한 노년기 성생활을 위한 포괄적인 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 성별을 고려한 차별성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성에 대한 욕구와 중요도를 높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선에 의해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 욕구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무배우자 노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에 관한 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성 욕구 정도에 따른 대처 행동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Bang, Y. S., & Nam, K. M. (2009). The influence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need coping behavior of the elderly on their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6, 215-238.

- Choi, Y., Kim, Y., & Kim, Y. (2010). Effect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desire of aged people in the institution on coping behavior toward sex.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10), 226-236.
<http://dx.doi.org/10.5392/jkca.10.10.226>
- Delamater, J. D., & Sill, M. (2005). Sexual desire in later life. *Journal of Sex Research, 42*(2), 138-149.
<http://dx.doi.org/10.1080/00224490509552267>
- Jagus, C. E., & Benbow, S. M. (2002). Sexuality in older men with mental health problems.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7*(3), 271-279.
- Kalra, G., Subramanyam, A., & Pinto, C. (2011). Sexuality: Desire, activity and intimacy in the elderly. *Indian Journal of Psychiatry, 53*(4), 300-306.
<http://dx.doi.org/10.4103/0019-5545.91902>
- Kang, H. S., & Kim, T. H. (2002). A qualitative study on the spouseless elder's the sexual desire and types of its solu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3), 127-151.
- Kim, B. M.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senior citizens' sexual desire-coping behavior on their sexual attitude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Kim, G. Y., Song, H., & Park, S. M. (2005). A study of knowledge, attitude, and importance of sexuality in the age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1*(4), 324-332.
- Kim, H. D., & Kim, M. W. (2013). A study on the resilience of single elderly people -Focusing on dat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9*, 309-329.
- Kim, H. S. (2007). Corelation on perception of sex, sexual life and marital relationship in older adul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8*, 311-338.
- Kim, J. H., & Lee, C. E. (2000). A study on sexuality of the married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3), 185-195.
- Kim, K. Y. (2011). Sexual realities and perceptions of the elderly: Comparison of 2005 and 2011.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Studies Seasonal Conference Collection of Dissertations, 10*, 51-86.
- Ko, Y. H. (2008). *A study on intimate, loving relationships of heterosexual couple, sexual consciousness and satisfaction in life of single elderly pers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amna University, Jeju.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3). *Elderly's statistics*. Seoul: Author.
- Kwon, J. H., & Lee, Y. M. (2006).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ex and sexual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8*(2), 13-27.
- Kwon, S. S., Kim, M. H., Lee, W. Y., Lee, I. S., & Chung, Y. K. (2002). A correlational study on perceived sex life and depression in old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13*(4), 639-647.
- Lee, K. S., & Chung, Y. S. (1998). A study on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9*(1), 72-88.
- Lee, S. J., Lee, Y. S., & Kim, Y. E. (2013). The degree of elderly sexual desire and their attitudes towards sex.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0*(1), 1-2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Senior survey 2011*.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Na, I. S. (2006). A study on factor affecting on the sexual cop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3), 547-563.
- Park, Y. S., & Jeon, Y. M. (2001).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sexuality inventory for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4), 775-793.
- Park, Y. Y., & Noh, G. H. (2006). A study on the sexua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in a home for aged.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1*, 139-160.
- Ra, D., & Kim, Y. (2011). The impact of the elderly's sexual lif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85-204.
- Rim, C., & Park, M. (2011). A study on old people's sexual desire coping behavior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131-154.
- Ware, J. E. (1979). *Instruments for measuring nursing practice and other care variables*. Hyattsville, Maryland: DHEW Publication.
- Won, D. (2003). *The relation dating recognition of sex lif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singl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oo, J. S., Kim, C. J., & Park, J. W. (1985).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perception, health behavior, and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Yonsei Journal, 21*(5), 169-187.